

‘탄소중립 실천 여수’ 2150여 톤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포인트 7103세대에
1억1600여만원 인센티브 지급
나무 21만2000여 그루 효과
“시민들의 적극 참여 바란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상반기 215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COP33 유치를 위해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인 탄소중립포인트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가정, 상가, 아파



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만628세대가 참여해 에너지 감축 실적에 따라 7103세대에 1억16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150여 톤으로 이는 수령 30년 기준 나무 21만 2871그루 조경 효과다.

여수시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총 1000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모든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을 생활 속에서 실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수는 묘도지구 등이 수소 산업 협력 지구 기회 발전 특구로 선정되

면서 탄소중립에 노력하고 있다.

‘기회 발전 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목적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묘도 수소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탄소 배출 지역인 광양만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산업단과 인접해 탄소중립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산업인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화학·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크게 이바

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1포인트 당 지급단가 상향, 인센티브 지원 확대, 우수 실적 읍면동에 포상금 지급 등 탄소중립포인트 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연중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www.cpoint.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여수시 기후생태과,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 어린이 미술 체험전 개최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3층에 위치한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갤러리’로 대변신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EYES ON, HANDS ON, PLAY ON: 미술과 눈맞추고, 손잡고,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어린이 미술 체험전을 개최한다.

‘화가의 놀이터’라는 콘셉트로 김범수, 박은주, 서유라, 여동현 4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화가의 어린 시절과 꿈, 예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다.

예술가들은 모래·책·만화·영화 등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를 예술로 재창조한 회화, 설치, 영상, 샌드아트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단순 관람에서 벗어난 몰입형 체험 전시로 미술관이 제공하는 ‘플레이 맵’을 활용해 어린이가 스스로

보드게임을 하듯 참여하는 ‘자기 주도형 체험 전시’로 구성된다.

샌드아티스트 박은주와 여천초등학교 드림윈드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만들어진 특별영상도 만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여수 MBC 김지연 리포터의 재능기부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동화 같은 오디오 가이드도 지원된다.

이 밖에 전시장 곳곳에서 귀여운 고양이 에티켓과 함께 관람 예절을 배우는 국립현대미술관 공공캠페인 ‘뮤지엄매너’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에게는 컬러링북과 연필이 선물로 제공된다.

한편 엑스포아트 어린이갤러리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13시까지는 점심 시간 휴무,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와 체험은 무료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여수시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여촌 정착과 여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대출금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의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 자금 7500만원 이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 지침 상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귀어업인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직전 여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여

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재촌 비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어업 및 양식업 경력 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지침 심사기준에 60점 이상 심사점수를 얻은 경우 시에서 사업대상 후보자로 선정해 해양수산부에 보고 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09)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시민안전보험 6개 항목 추가... 총 24종 보장

여수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 여수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은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애 △개 물림사고 사망·후유장애 △성폭력범죄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등 6개 항목이다.

‘비 탑승 중 교통상해’는 휠체어 탑승자,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추가 항목은 올해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여수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개 항

목을 추가하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왔으며, 이로써 여수시민은 총 24개 항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게 됐다.

보장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시 자전거보합’, ‘영조물 배상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공고e스포츠부가 최근 '2024 전남도 청소년박람회 e스포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일 학교를 방문, 교사와 선수들을 격려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공고 e스포츠부, 전남 청소년박람회 우승

올 창단... 첫 출전 대회 우승
정기명 여수시장, 방문 격려

여수공고e스포츠부가 최근 '2024 전남도 청소년박람회 e스포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일 학교를 방문, 선생님과 선수들을 격려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공고e스포츠부'는 학과 개편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산업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4월 전남도 최초로 'e스포츠부'를 창단하며 주목을 받았다.

'e스포츠부'는 2개 종목, 선수 10명(리그오브레전드 5명, 발로란트 5명)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5월 '2024 전남도 청소년박람회 e스포츠대회' 출전, 리그오브레전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남도에서 총 21개교 25팀이 참가, 여수공고e스포츠부는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활약으로 도내 최강자로 우뚝 서게 돼 이목을 끌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여수공고 김대원 교장은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e스포츠부가 창단할 수 있었다"며 "첫 출전에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은 선생님들과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e스포츠 분야

진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e스포츠를 통해 여수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각급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투입,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섬까지 섬세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호평

보건복지부, 현장 간담회 성료

여수시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섬까지 섬세한 여수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3월 전국 12개 지자체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 ‘섬까지 섬세한 여수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

범사업을 2025년 12월말까지 27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7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1336명에 대해 3450여건의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영민섭 노인정책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 유애정 센터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돌봄 수행 기관 및 협력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본 보건복지부 영민섭 노인정책관은 “여수시가 민·관

협력을 잘 이끌어내고, 섬 복지 분야를 특성 있게 잘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해안권, 특히 전국에서 섬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모형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여수형 시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3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